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4

April 2006

| 이달의 이슈 |

금융도시 서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신 창 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장)

| 경제포커스 |

수도권 테마파크 현황과 발전방안

윤 형 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부연구위원)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 육성방안

이 병 민(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장)

| 자치구경제이슈 |

「광진구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김 석 근(광진구청 생활복지국장)

| 경제동향 |

경기/고용/금융/부동산

| 부록 |

통계표

서울경제

2006.04

차 례

이달의 이슈	3	금융도시 서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신창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장)
경제포커스	9	수도권 테마파크 현황과 발전방안 윤형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부연구위원)
	26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 육성방안 이병민(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장)
자치구경제이슈	47	「광진구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김석근(광진구청 생활복지국장)
경제동향	57	요 약
	58	경 기
	69	고 용
	79	금 융
	88	부동산
부록	99	통계표

금융도시 서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신창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장
sch@sdi.re.kr

지난 4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동북아 금융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서울시의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파이낸셜 타임즈 주최로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이는 서울시가 민선 3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그 동안의 사업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었다.

서울시가 그동안 금융허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은 금융도시 인프라 구축과 투자·생활개선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여의도에 AIG와 공동으로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다. 2003년 6월 양측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올 해 건축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져 2010년 건물이 완공되고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다. 10,000평의 부지에 최첨단 오피스 세 개 동과 호텔 및 컨벤션센터, 상가가 들어설 한 개 동을 150,000평 규모로 건설하여 국제적 금융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방식은 서울시가 토지를 장기 임대하고 AIG는 사업비를 조달하여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사업비 조달 중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최소한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여 외자유치에도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토지의 임대료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운영수익에 따라 추가수익을 배당받고, 임대기간 종료 시 건물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투자·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외국기업이 서울에 투자하고 지사나 아시아지역본부를 입지하고자 할 경우 직원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머서 휴먼 리서치 컨설팅(MHRC)사가 평가한 세계 215개 도시의 ‘생활의 질’ 평가 순위에서 서울은 2005년도에 89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경쟁도시들은 싱가포르(34위), 도쿄(35위), 오사카(51위), 홍콩(68위), 상하이(103위) 순으로 나타나 상하이를 제외한 도시들이 서울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다. 서울은 교육, 주거, 생활, 교통 등 주요 분야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이 자녀들의 교육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용산 외국인학교를 올해 내로 완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전용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하여 서초구에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DMC내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고자 한다. 교통분야에서도 외국인이 도로표지판 등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영문표기를 정비하고, 버스의 영문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청 본관에 서울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24시간 의료연계 서비스, 투자나 비자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을 연 1회,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를 연 4회, 금융도시자문단을 월 1회, 서울타운미팅을 연 1회 운영하고 있다.

지난 컨퍼런스에서는 그린스핀 전 미국 FRB 의장,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이 참석하여 서울이 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해 새겨들어야 할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린스핀 전 미국 FRB 의장은 금융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대규모 자본을 가진 투자가와 투자기관이 필요한데, 이러한 투자거나 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해당 도시의 역량, 시스템, 교육기관, 전문가, 법제도 등 투자가를 유치할 수 있는 문화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둘째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주체들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며, 적절한 규제, 정치적 환경도 필수적이다. 셋째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해당 금융센터의 틈새시장 개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서울은 금융센터로서 아직 발전 초기단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 세대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은 발전을 거듭했으며, 이러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서울은 점차적으로 진보해서 향후 중요한 금융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으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금융센터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다음 일곱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금융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안전성이 중요하다. 둘째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내외국인의 동등 대우 등이 중요하다. 셋째 공정한 시장이 필요하다. 규제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 넷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제가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 환경, 국제성 등에서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 교육수준이 높고 윤리의식 수준이 높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금융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마지막 언급은 서울이 스스로 자신감과 비전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 같다.

향후 서울을 국제금융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금융도시로서 필요한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고 우수한 인력과 금융기관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외국인 모두에게 매력적인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여정부는 수도권에 대해서 양적성장을 지양하고 질적 발전을 추구하면서 서울을 금융·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서울을 금융센터로 만들겠다는 정책방향은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일치하는 셈이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여 서울이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 제도적 시스템, 인력 등 콘텐츠, 인프라가 모두 조화있게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환경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정비나 콘텐츠 확보 정책의 많은 부분은 중앙정부의 역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는 금융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몬트리올의 사례에서 보듯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금융도시 서울을 육성하기 위해 상호 협약을 하고 금융특구 지정, 해외 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 검토하여 주도적으로 중앙정부와의 협조를 이끌도록 해야 할 것이다.